

믿음의 사람들 I.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과 신뢰가 믿음이다 - 믿음과 반응의 관계

[히브리서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 믿음과 하나님

(1)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다. 믿음은 인간의 신념과는 다르다. 인간의 신념은 주체가 '나'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한다. 히브리서 11:6절에 보면 '믿어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한다. 무슨 말인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으라는 말인가?

성경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한다. 신앙이 있다면 이 내용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 그런데 왜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 집 중된 '신념'과 다른 것이다.

(2) 왜 믿음이 없는가? 또 믿음의 기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도 흔들리는 '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와 같은 집을 '모래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한다. 기초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린다. 내 상황과 그에 따른 감정과 생각에 기초해서 집을 짓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 생각과 감정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는 없는 것 같은 것이다.

(3) 존재에 대한 문제는 설명과 이해가 아니다. '확신'이다.

믿음에 대한 성경의 언급을 보라. 설명이 아니다. 아주 단순한 명제를 던지고 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가?"이다. '관계'는 물리적 과학적 증명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존재는 '관계'에 대한 문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설명이 적합하다)이며, 관계는 '신뢰와 확신'으로 형성 된다.

어떤 확신인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이해의 관점이다.

(4) 믿음의 완성?

신앙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는 있지만 그 존재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황에 흔들린다. 믿음의 간증들을 보라. 모두 '진동과 어려움'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 아브라함과 노아 등의 경우를 보라.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한 사건의 '이벤트'가 아니며,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사건은 언제나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와 같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설정이 바로 '믿음'이다.

(5) 잘못된 믿음의 가르침

* 행위 중심적 / 사건 중심적 가르침

절대 깊이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자신의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존재이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요구에 대한 'Yes'와 'No'에 관심이 있다. 자신의 요구가 채워지면 좋은 부모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한다.

그러나 철든 성인 된 자녀는 다르다. 부모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분들의 인생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다. 즉,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성숙한 자녀이며 철든 자녀이다.

2. '믿음과 반응'

(1)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확신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다.

확신의 구조가 있어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2)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어두움, 질병, 문제, 고통 등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3)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다 - '반응'

우리의 정체성은 '반응'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어디에 반응하도록 지어졌는가?

ㄱ. 인간은 '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지어졌다.

ㄴ.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의 아버지에게 반응하셨다

(4) 사단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어두움, 부정적인 영향력에 반응하기를 원한다.

* 아담과 하와의 예

정체성이 파괴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응' 하지 않았다. '어두움, 사단'의 음성에 반응한 것이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에 '반응'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응'은 정체성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다. 다른 음성에 반응할 수 없다. 만약 다른 음성에 반응하고 있다면 그 '주체'는 이미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5)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을 보라. 사단의 시험에 반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생명'에 있었다.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무엇인가? 치료와 죄사함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신 것이다.

(6)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다.

로마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좋은 예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리 만큼 '반응'한다. 이유는 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이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다.

[로마서 9:4]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7) 예수님의 질문 -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의 역사를 보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를 보라.

[마태복음 16:13-19]

13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1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1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18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ㄱ. 13절 :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ㄴ. 14절 : 베드로의 대답(반응) -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ㄷ. 15절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ㄹ. 16절 : 베드로의 대답(반응) -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ㅁ. 18,19절 : 예수님은 베드로의 reaction 위에 교회를 선포하신다. 그 위에 임하는 권세를 선포하신다.

(8)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반응함.

[느헤미야 8:9]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사람들이,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렸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듣는 존재란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란다. 너희는 원래 ‘나의 말’에 반응하도록 지어진 존재란다” 라는 의미이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반응’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9절)” 그들이 깨어나는 장면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장면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깨닫는 순간이다. 그들의 반응이 살아난다.

(9) 성도와 교회는 무엇인가?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 뜻에 반응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이다. 예수님의 사단에 대한 반응을 보라. 예수님은 사단을 꾸짖으셨다. 타협하거나 반응하지 않으셨다. 교회의 모습이다. 이 부정적인 어두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더욱, 확실히 아는 것이다.

(10) 잘못된 반응의 예

* 사울의 반응 (불순종)

자신의 것으로 먼저 반응했다. 먼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 10명의 정탐꾼의 반응과 백성들이 받은 영향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믿음의 반응이 아니다. 현실의 문제가 주는 그림자, 즉 두려움에 반응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내면의 두려움의 그림자에 반응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흔들어 버렸다.

3. 명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존재들이다.

(1) 백부장의 반응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했다. 상황과 현실의 문제가 아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반응할 수 있었다.

(2)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예수님께 반응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반응한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음부까지 가는 거룩한 어둠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했다.

수치의 소리, 저주의 소리, 참소함, 어둠, 절망, 고통, 부정적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집중력이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함으로 승리를 이루셨다.

(3) 내면으로 들려오는 어둠, 사단의 소리를 거절하라. 차단하라. 그리고 선포하고 확정하라.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도록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다”